

가나자와 전통공예 기획전시, 전주서 개최 **일본 장인들의 숨결 느껴보자**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인 가나자와에서 활동하는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에서 열린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일본의 전통공예인 '가가미즈히키'(축의금이나 부조금 봉투, 선물 포장지 등에 꾸며지는 장식으로, 홍백이나 흑백 등으로 된 끈) 등 약 120여점의 일본 공예품을 전시하는 '제16회 가나자와 시 전통공예 기획전시회'를 13일까지 개최한다.

**13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서
상강판넬·목걸이 공예
브로치 장식품·부채 등 선배
전주시민 대상 체험 워크숍도**

전주시와 가나자와시는 지난 2002년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양 도시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지역 내 전통공예를 전시·시연·체험·토론 등을 통해 상호 협력과 우의를 다지는 민간교류 행사를 올해로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상강판넬과 목걸이 공예, 브로치 장식품,

꽃병, 각봉 쟁반, 낙수지, 닥지(금박뿌리기), 넥타이, 명암지갑, 복주머니, 스카프, 바늘상자, 엽서, 양산, 부채 등 약 120여개 다양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전통공예인 '가가미즈히키'의 세공자인 스다 히로시와 스다 사유미가 참석해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시연 및 체험 등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시회 기간 중 주말에는 한지공예 체험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시회와 가나자와시의 전통공예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날 전시회 오픈식에는 시카다 사토시 가나자와시 시민국장과 스다 히로시 세공자인 등 가나자와시 방문단 5명과 김동식 국가무형문화재, 김혜미자.고수환.김중연 등 전북무형문화재, 백철희 고감한지 대표, 박갑순.윤소희 등 한지공예가,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양 도시 민간 전통문화 교류의 장이 연출됐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전통을 지켜온 사람과 한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도시간 전통공예인의 꾸준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가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가맥' 을 아시나요?

가맥축제 내일 광파르

12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지역의 독특한 음식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가맥(가게맥주)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 가맥축제'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가맥축제에서는 가맥 콘서트와 가맥 어울마당·타투 그리기·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당일 만들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 맥주연못이 조성되고, 도지사인증상품 홍보관 등을 운영해 지역 제품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과 도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안전문제를 고려해 장소를 기존 전통문화의전당에서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축제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하며, 가맥 인지도 더욱 다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가맥축제는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전북민의 독특한 가맥문화를 널리 알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한편 '가맥'은 가게맥주의 줄임말로 1980년부터 전주지역 동네 가게에서 탁자와 의자만을 놓고서 술잔을 기울이는 음주문화이다. /뉴스

2017 가맥축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가맥축제. →



3000 관객들과 함께 더위 날렸다

군산예당 개최 '썸페스티벌' 성료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무더운 여름 문화피서로 준비한 썸페스티벌의 2주에 걸쳐 진행된 4회차 공연이 폭염을 뚫고 관객 3,000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28일과 29일, 그리고 8월 4일과 5일 총 4회로 진행된 썸페스티벌은 B-Boy 댄스, 리듬댄스, 뮤지컬 댄스 등 신나는 사운드와 화려한 춤판을 선보였으며, 40인조의 시민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영화 OST, 아름다운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여 남녀노소 관람객들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꾸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야외광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역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적극 도와 문턱 낮은 공연장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삶의 여유가 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예술의전당은 8월의 기획전시로 군산출신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 대상 수상 작가 초대전과 '송인섭 트리오'의 하우스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